



## 한일 통화스왑의 일시적 확대조치 종료

최 원 선임연구원

- 한일 양국은 통화스왑 계약 규모의 일시적 확대조치를 예정대로 2012년 10월 31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향후 경제 여건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협력하기로 함.
  - 2011년 10월 19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통화스왑 계약 규모를 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하였으며,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은 기존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통화스왑 100억 달러 이외에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신규 설정한 바 있음.
  - 한일 양국은 일시적으로 확대된 57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2012년 10월 31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종료 이후 한일 통화스왑의 총 규모는 130억 달러가 될 것임.
    - 130억 달러 가운데 달러로 인출할 수 있는 100억 달러는 2015년에, 엔화로 인출할 수 있는 30억 달러는 2013년 7월에 종료될 예정임.
  - 한일 양국은 이와 같은 통화스왑의 일시적 확대조치가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양국의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 양국의 정치적 문제가 이번 결정에 반영되었다는 일부 분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과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결정이며, 과거에도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통화스왑을 종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함.
  -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고, 대외 건전성도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거시·금융시장 환경변화가 계약 종료 결정에 반영됨.
  - 2008년 12월 체결하였던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이 2010년 2월에 종료된 바 있고, 2008년 12월 3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왑을 2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 이후 2010년 4월에 30억 달러 규모로 환원한 바 있음.

(한일 통화스왑 계약의 일시적 규모 확대 조치 종료, 기재부, 10/9)